

광주시, 올 골목상권 경영자금 1400억원 펀다

상반기 자금 70%인 1천억 지원 신보·은행권, 최대 3천만원 대출 강 시장 “튼튼한 버팀목 되겠다”

광주시가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경영자금 1400억원을 펀다. 특히 상반기에 경영자금의 70%인 1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20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신용보증재단과 광주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7개 금융기관과 함께 ‘2023년 소상공인(골목상권) 특례보증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500억원 규모이

던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민선 8기 들어 지난해 1000억원, 올해 1400억원으로 확대됐다.

이번 특례보증은 ‘광주경제, 든든함 더하기 경제정책’ 중 하나로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정책이다.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김귀남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노현주 KB국민은행 호남3(광주)지역본부장, 박내춘 NH농협은행 광주본부장, 안광운 신한은행 호남본부장, 임동근 우리은행 광주금융센터영업그룹장, 양동원 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출연금과 사업비 지원 등을 통해 올해 소상공인(골목상권) 특례보증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호협력기로 뜻을 모았다.

앞서 광주시와 6개 은행은 경영자금 75억원(시 40억·6개 은행 35억)을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으며, 시는 광주신보재단의 전액 보증으로 시중은행을 통해 1000억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지역 소상공인에게 융자할 예정이다.

특히 광주시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총 48억원을 투입,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동안 대출금리의 이자 3~4%를 지원한다. 신용평점 중·저신용자는 1%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유흥·도박·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광주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전 업종이다. 대출조건은 광주신보재단의 심사·보증을 통해 담보없이 융자받을 수 있다.

신용점수가 350점 이상인 소상공인은 협약은행에서 최대 3000만 원 한도 안에서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중 선택해 대출 신청하면 된다. 변동금리로 단기코픽스+1.70~1.80% 또는 CD금리(91일)+1.70~1.80%이 적용되며, 보증수수료는 연 0.7%다.

특례보증 운영기간은 시행일인 3월20일부터 한도 소진 때까지다.

신청 희망자는 광주신보재단 홈페이지(www.gjsinbo.or.kr)를 통해 상담예약을 한 후 예약 날짜에 해당지점을 방문하

면 된다. 강 시장은 “민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계와 기업이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광주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하반기 보증규모 400억원 확대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광주북구법인을 통한 미소금융(창업, 운영, 시설개선 자금 등) 이용자와 신용회복위원회 빚고을론 이용자에게 1년 동안 이자 전액(3.5~4.5%)을 지원하고 있다.

김성수 기자 seongsu.kim@jnilbo.

“내 나무 갖자” 광주시, 28일 나무 무료 나눠주기

1명당 4주까지... 선착순 2000명

광주시는 ‘내 나무 갖기’의 일환으로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시청 야외음악당에서 ‘2023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진행한다. 20일 밝혔다.

광주시는 매년 묘목을 나눠주며 ‘내 나무 갖기’를 홍보했다.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2년 간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지난해는 온라인 신청 뒤 분산 배부방식으로 진행했다.

올해 행사는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에 범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흥가시나

무·삼색조팝나무·제주산수국·샤인머스켓 등 예쁜 꽃과 열매가 맺히는 4개 수종을 시민 2000명에게 선착순 무료로 나눠준다. 시민 1명당 4주까지 받을 수 있다.

행사 당일 오전 9시부터 번호표를 선착순 배부하며, 10시부터 나무를 나눠줄 예정이다.

정강욱 광주시 녹지정책과장은 “봄철 나무심기 기간을 맞아 시민들이 나무를 심고 가꾸기에 자발적으로 참여, 미래세대에게 소중한 자원을 물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성수 기자



광주 서구-시교육청 협력사업 논의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이 20일 서구청 이음홀에서 자치구와 교육청 간 협력사업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 서구 제공

전남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여건 집중 점검

전남도가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근로여건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전남도는 오는 24일까지도, 시·군·합동으로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른 숙박·숙식 여건, 고용주와 근로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임금 지급 방법, 고용주와 근로자 만족도 등을 중점 확인한다고 20일 밝혔다.

조사·점검 이후에는 문제점을 파악해 계절근로자 근무에 따른 적법한 행정지도를 할 방침이다. 또 고용주와 계절근로자 간 불편 사항을 최소화 시키고, 계절근로

자가 하루빨리 적응해 농촌에 필요 인력이 원활히 수급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올해 전남도는 법무부로부터 농어업 분야 계절근로자 상반기 배정 인원으로 지난해(1230명)보다 3.3배 증가한 3773명을 배정받았다.

시·군은 봄철 농번기 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목표로 근로 파견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 등 입국 절차를 진행 중이다.

나주시와 고흥군에선 최소 하루 단위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공급하는 ‘최단기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최황지 기자

‘광주형 청년 깡이어’ 스타트... 내달 16일까지 30명 모집

광주시가 ‘광주형 청년 깡이어(Gap year, 이하 깡이어) 프로그램’ 참여자 30명을 4월16일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학업과 취업 과정 중 발생하는 갭 기간을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해외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이 봉사 여행, 전문가 과정, 한달살기, 워킹홀리데이 등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통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탐색하며 진로를 설정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한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시인 만19~39세 미취업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광주형 청년 깡이어는 깡이어 유형(27명)과 깡이어+신활력탐험대 유형(3명)으로 참여자를 모집하며, 깡이어+신활력탐험대 유형은 K-POP축제·스토

리텔링·Y벨트 등 관광 콘텐츠 소재 발굴과 정책제안 과제가 부여된다.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는 공통적으로 항공권 예약, 비자 발급 수속 등 출입국 제반 사항과 해외 프로그램 활동 등 1인당 500만원 이내의 활동비가 지원된다.

공모 방식으로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로 이뤄지며, 신청은 20일부터 4월 16일까지 한국 깡이어 홈페이지(www.koreagapyear.com) 상단 참가 신청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청년정책플랫폼(gwangju.go.kr/youth/)이나 광주시 홈페이지(gwangju.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접수 문의는 한국깡이어(02-318-2553) 또는 광주시 청년정책관(062-613-2714)으로 하면 된다.

박상지 기자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4월 국회 본회의 통과 기대감

TK신공항과 동시 상정 예정 ‘쌍둥이 법안’ 통과하나 촉각

국가 지원을 골자로 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잇단 악재를 딛고 속도를 내면서 4월 국회 통과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TK신공항 특별법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별법 쟁점들에 대해 여야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건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다룰 국방위 법안소위는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이다. TK신공항 특별법이 국토위 소위를 통과하고 나면 나란히 4월 국회에서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동시 상정될 예정이

다.

원내 1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키로 한 광주 군공항 특별법은 지난해 국방위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제안심사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선에서 마무리됐고,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며 의결하는 축소심사(逐條審査)와 찬반 토론, 의견청취, 표결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함평 등 일부 지역에서 ‘군공항 이전 설명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법안 통과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 송갑석(광주 서구 갑) 의원은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법 제정은 빠른 속도로 이뤄질 것”이라며 “국회 일정상 4월에 상임위와 본회의를 모두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이전·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에 정부 재원의 선제적 투입이 필요할 경우 ‘종전부지 실시계

획 이전에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두 특별법에 모두 포함됐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이날 “몇몇 걸림돌이 해결됐다”며 “마음 같아서는 3월 국회에서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가 지원’을 어느 부처에서 맡을지를 놓고 소관 부처와 기획재정부 간의 미묘한 신경전 등은 특별법 이후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한편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이전 군공항 건설 4조791억원, 이전 주변지역 지원에 4508억원 등 모두 5조7480억원을 들여 종전부지(8.2km², 248만평)를 개발한 뒤 그 수익금으로 15.3km²(463만평) 규모의 신공항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 대형 프로젝트다.

박상지 기자

‘일자리·수익 두 마리 토끼’...전남형 예비마을기업 모집

28일까지 시·군서 접수 사업비·운영교육 등 지원

전남도는 지역 자원을 활용해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2023년 전남형 예비마을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마을기업 설립을 바라는

법인이나 단체로, ‘입문교육’을 이수하고 공동체성·공공성·기업성·지역성 등 ‘마을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법인이 아닌 경우는 마을기업 지정 시 법인으로 등록해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전남형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인건비, 운영비, 시설·자산취득비 등에 한

곳당 2000만원을 지원하며, 마을기업 운영에 필요한 교육·경영 컨설팅 등도 함께 추진한다. 사업 참여를 바라는 법인·단체는 오는 28일까지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갖춰 사업장 주소지 시·군 마을기업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예비마을기업 지정 규모는 20곳 내외로 심사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황지 기자